현대차 주간 2교대 8+9 근무안 제시

회사측 "내년 9월 시행"…노조는 반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의 핵심안건으로 다루는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대한 회사 측의 기본골격이 나왔다. 이 회사 안을 토대로 노사가 추가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12차 임협에서 사측은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2교대제 시행을 위한 회사의 기본입장이 되는 안을 제시했다.

회사 안에 따르면 주간 2교대의 근무형태는 1조가 8시간, 2조가 9시간 근무하는 것이다.

현재의 주간조, 야간조 2교대 근무형태에서는 주간조가 잔업까지 포함해 10시간, 야간조도 10시간 근무하고 있다.

회사가 내놓은 주간 2교대를 위한 8시간+9시간 근무형태는 회사가 지난 노조 집행부와 합의한 것이다. 회사는 8+9시간 근무형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근무를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는 1조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근무하며, 2조는 오후 3시1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특히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될 수 있는 주간 2교대 시 생산능력과 생산량의 경우 현재 주·야간 2교대(10+10시간)의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공장별 생산물량 조정과 유지기준을 위해서는 시간당 생산 대수와 투입인원 산정기준을 마련한 뒤 공장간 배치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간 2교대 시행시기는 2013년 9월1일부터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주간 2교대에 대한 회사 안은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년 9월에 시행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주간 2교대 근무형태는 8+8시간, 시행시기는 2012년 12월 말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 큰 틀에서 접근하면 예상보다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폴 보다 더 비싼 알뜰주유소

광주·전남 등 전국 10곳 휘발유값 51원까지 높아

정부가 기름 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가 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무상표 자영(자가폴·무폴)주유소보다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1일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제외, 25일 기준) 가운데 10곳에서 알뜰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자가폴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폴이 알뜰주유소보다 싼 것으로 집계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자가폴이 1893.77원이었고 알뜰 주유소가 이보다 0.94원 비싼 1894.71원이었다.

휘발유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대전으로 알뜰 주유소가 자가폴 주유소보다 37.74원 비싼 1903.20원에 팔았다.

경유는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알뜰주유소가 더 비쌌다. 역시 대전의 알뜰 주유소가 1728.60원으로 자가폴 주유소보다 ℓ당 52.07원 비싸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알뜰주유소는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 4사보다는 대체로 싸게 팔았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두 상표보다 비싸게 파는 지역도 휘발유는 6곳, 경유는 4곳 있었다.

이채익 의원은 "기름 값 안정 대책으로 내 놓은 알뜰주유소가 기존 무폴 주유소보다 비싸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무작정 알뜰주유소만 늘릴 게 아니라 정유사의 독점을 깨는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월 광공업 생산·출하 광주 줄고 전남은 늘어

6월 중 광주지역의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6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동기대비 0.4%, 지난달보다 0.7% 각각 감소했다.

기계장비(29.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0.0%), 1차금속(39.6%)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7.3%), 담배(-66.9%), 금속가공(-16.2%) 등은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전달보다 4.9% 각각 줄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전달보다 6.0% 각각 늘어났다.

6월 중 전남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동기대비 7.5%, 전달보다 1.8% 각각 증가했다.

식료품(-17.2%)과 고무 및 플라스틱(-2.0%) 등은 줄었지만, 1차금속(11.0%)을 비롯해 금속가공(43.1%), 화학제품(3.6%)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의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 전달보다 1.1% 감소를 나타냈으며, 재고는 각각 1.1% 증가와 4.3% 감소를 기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남양·금광 밀려나고 호반·우미 '빅3'에

100대 건설사에 광주·전남 9곳…남흥·보성 첫 진입

광주·전남지역 건설사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부동의 1위' 금호산업과 최근 10여년간 '빅3'를 형성했던 남양건설·금광기업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이 대신했다.

지난 31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 9개사가 전국 100대 건설사에 랭크됐다. 지난해보다 2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금호산업을 비롯해 호반건설, 우미건설, 남양건설, 금광기업, 중흥건설, 남흥건설, 보성 등이다.

특히 남흥건설과 보성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 10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 1위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 2조452억원의 금호산업이 차지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라는 제약 탓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86억원 줄며, 전국 13위에서 16위로 내려앉았다.

2위(전국 32위)는 KBC광주방송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호반건설이 3위에서 한단계 더 올라섰다. 매출액도 전년(5969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1조395억원을 기록했다.

3위는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미건설로 641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전국 56위에서 47위로 9계단 상승하며, 광주·전남 '빅3'에 등극했다.

줄곧 2위를 지켰왔던 남양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이후 실적이 하락하며 4위(전국 52위)로 내려앉았다. 남양건설은 2010년 9899억원, 2011년 6866억원, 올해 5271억원으로 매출이 2년새 절반(46.7%, 4628억원)가까이 줄었다.

다음으로 금광기업(4559억원) 57위, 중흥건설(3152억원) 77위, 남흥건설(2603억원) 85위, 보성(2209억원) 95위 등의 순이다. 특히, 한양의 지주사인 보성은 2010년 277위에서 95위로 2년만에 182계단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지역 건설사는 총 20개사였다. 이들 건설사의 총 매출액은 7조1801억원으로, 전년도(6조6337억원)보다 8.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11조7108억원으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삼성물산이 10조1002억원, 대우건설 9조2224억원, GS건설 8조90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2 시공능력평가 1000억원이상 광주·전남 건설사 (단위:억원)

순위 광주전남	순위 전국(전년도)	회사명	매출액	지역
1	16(13)	금호산업(주)	2조0452	전남
2	32(49)	(주)호반건설	1조0395	광주
3	47(56)	우미건설(주)	6412	전남
4	52(43)	남양건설(주)	5271	〃
5	57(59)	금광기업(주)	4559	〃
6	77(94)	중흥건설(주)	3152	〃
7	85(119)	(주)남흥건설	2603	〃
8	95(124)	(주)보성	2209	〃
9	98(87)	남해종합개발	2120	〃
10	104(112)	동광건설(주)	2031	〃
11	110(123)	남화토건(주)	1845	〃
12	135(148)	남영건설(주)	1395	〃
13	136(144)	해동건설(주)	1394	〃
14	140(162)	제일건설(주)	1323	〃
15	149(180)	가산토건(주)	1189	〃
16	154(182)	남도건설(주)	1152	〃
17	161(137)	남광건설(주)	1118	광주
18	166(204)	위본건설(주)	1079	전남
19	173(164)	남해종합건설(주)	1051	광주
20	174(189)	(주)영무토건	1051	전남

모처럼만에 웃은 코스피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돼 코스피가 38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지난 31일 코스피는 전날 종가보다 38.20포인트(2.07%) 오른 1,881.99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오후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한국 자동차 아프리카 수출 34% 증가

아프리카와 중동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아프리카 지역 수출은 작년 대비 34.4% 증가한 12억8301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완성차 수출은 2006년(13억3534만 달러)에 1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으며 작년(21억5756만 달러)에는 2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지역에서 올해 완성차 수출 25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대비 8.1% 증가한 41억2821만 달러로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81.99 (+38.20)
▲ 코스닥지수 467.61 (+2.15)
금리 (국고채 3년) 2.85%
▼ 원·달러 환율 1,130.60원 (-7.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or소주 1병 와인or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인터넷·안마기·세신·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